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김홍도 그림 효자가 현실에...

주요수미(周繞彌彌) 소견

1796년(정조 20년) 수원 용주사에서 간행된 단원 김홍도가 그린 판화본 부모은중경을 보면, 두 부모를 어깨에 업고 수미산을 오르는 효자의 모습이 그려진 판화가 있다.



주요수미

수미산은 불교의 세계관의 근간을 이루는 산인데, 아홉 개의 산과 여덟 개의 바다가 겹쳐진 가운데 가장 큰 산을 수미산이라고 한다. 그 정적에는 사천왕이 살고, 꼭대기에는 제석천이 산다고 한다. 해와 달이 수미산의 허리를 돈다고 하니 그 산의 높이는 불가사의하다.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지계효 자라는 기사를 보고 흥미가 생겨 열어 보았다. 아버지를 지계에 업고 금강산을 유람한 아들이란 제목에 함께 간 가족이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지계에 노인을 등에 업고 담담한 얼굴로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 중년처사의 얼굴이 보였다.

이군의 씨 특수 지계 제작해

아버지 업고 금강산 유람

'부모은중경' 재현한듯 '감동'

글을 읽다가 보니 돌아가신 속가 아버지 생각이 나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홀로 되신 늙은 90세의 부친을 위해 금강산 여행을 계획한 내용이었다.

그는 가난한 농부로서 7남매나 되는 자식들을 다 키워주시고, 막내인 자신까지 대학공부까지 시켜주시는 노부를 위해 형제들과 의논해서 금강산에 가기로 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산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불현듯 어릴 적 지계 지고 산에 올라 나무하던 기억이 떠올라 지계에 모시고 다니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생각해 낸 것이 가뽏고 단단한 알루미늄지계였다. 그래서 설계도를 그려 지계를 만들어 줄 기술자들을 찾아 다녔다. 그러나 모두들 못 만드겠다고 거절하거나 터무니 없는 비싼 제작비를 요구해서 한달여 동안 제작지를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지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등산용 지계에 특수용접을 해서 발견이까지 달린 지계를 만들었다.

조여름 날씨에 혼자 걷기도 험한 산길을 아버지를 등에 메고 금강산을 오르는 이군의 거사를 보고는 나이많은 관광객들은 다가와 칭찬했다. 함께 금강산에 오른 큰누나와 형도 이군의 거사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 주며 막내 동생을 격려했다.

그렇게 천천대로, 귀면암으로, 구룡폭포로, 명경대로 부지런히 다니고 90세의 늙은 아버지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금강산 구경을 흠뻑 취하셨다고 한다. 지계 무게가 15kg, 아버지가 올라왔으면 60kg이 넘는 지계를 메고 다닌 이군의 거사. 그의 어깨와 팔이 뻘뻘이 굳고, 허리가 굽어질 듯 했지만, 어린애 모양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다 한다.

금강산 온천에 함께 간 형이 이군의 거사의 등을 보니 실핏줄이 터졌는지 상반신이 온통 피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금강산 지계 효자 이군의 거사의 사연은 중국에까지 알려져 공자의 고향 곡부에서 호텔을 경영하는 한국인교포가 이군의 거사 가족을 곡부로 초대했다.

92세의 아버지를 지계에 업고 금강산에 다녀온 한국의 효자가 왔다는 소식에 '효가 사라진 중국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며, 중국지역에 방송되는 산동TV는 저녁 주요뉴스로 여러 번 방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러 찾아왔다고 한다.

단원 김홍도가 그린 용주사판 부모은중경의 주요수미 삽화가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본 것은 실로 감회가 깊다. 아들 하나가 출가하면 9곡이 생전한다는 데, 중노릇 제대로 해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극락왕생할 수 있게 어떻게든 삼학(三學)에 정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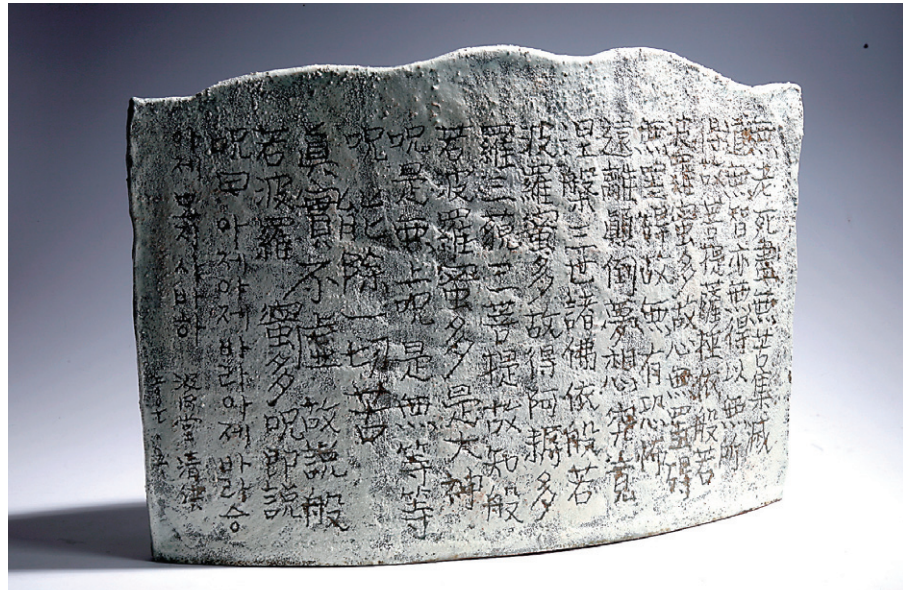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부처님 말씀은 제 창작의 근원이죠”

도예가 윤광조 개인전

“제 작업은 늘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도자 몸체에 반야심경을 새기는 도자 작업을 하죠. 한 자라도 틀리면 다 버려야 해요.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죠. 이는 제 나름의 수행의 방법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한 두달 정도 시간을 보낸 뒤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작품에 임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늘 제 작품 세계를 한 차원 높여 주는 기준점이라 할 수 있죠”



윤광조 씨의 전시가 1월 27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조현화랑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산중일기 혼돈, 심경, 선정 등 다양한 도예 작품들을 전시한다. 작품은 반야심경을 새긴 '심경'



윤광조 작가

분청 예술포자의 길을 걸은 윤광조 씨의 전시가 2013년 1월 27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조현화랑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산중일기, 혼돈, 심경, 선정 등 분청으로 작업한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그의 작품 8할은 불교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4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카오스 시리즈 역시 태국여행에서 사찰을 돌며 명상한 결과물이라고 한다.

“불교 국가인 태국 여행을 가서는 사찰이 있으면 들러서 명상을 했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바로 혼돈의 시대다. 카오스다. 하지만 이것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바로 카오스 시리즈예요. 카오스는 바로 생명 입태전의 출만한 에너지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 에너지를 작품으로 변형시키며 아주 즐거웠습니다”

작가는 원기둥이나 삼각기둥 두 개의 판을 겹친 뒤 그 위에 산, 구름, 바람, 비와 같은 자연을 그려 넣거나, 도자 몸체에 반야심경을 뜻으로 새겨 작품을 완성한다. 이들은 전통 도자기의 비례 균형 색에 치우친 장식적인 특징에서 탈피한 작품들로 흙의 물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보이는 분청

도자에 반야심경 새기며

매 전시마다 작품 임해

80년대 4만배 정진 등

작가 세계 방향성 찾아

사기 기법으로 제작되는 것이 특징이다.

작가의 이런 자유로운 작업이 있기까지는 무수한 고민의 시간이 있었다. 1980년대 작가는 원형의 도자 작업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작품을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막막하기만 했다. 그 막연함을 오로지 부처님께 맡기고 절을 시작했다. 지리산 정각사에서였다. 하루 3천배씩 열흘, 5천배씩 이틀 모두 4만 배를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물레를 버리지’ 물레에 속달된 성형의 기득권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물레에 매달리지 않았다. 코일처럼 길게 뽑은 흙으로 타레 쌓기를 하거나, 밟고 두드려 만든 흙판을 마주 보게 하거나, 삼각기둥 형태로 붙이고 다듬어 가마에 구워 작품을 완성해나갔다. 무기교의 기교를 작가가 보여주었다. 이는 회화성 조각성 건축성까지 보여주는 현대도예의 종합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는 부처님 법 만나 많은 고비를 이겨냈어요. 이렇게 절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를 얻었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를 불교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예술가란 게 아무도 안간 세계를 가야되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부처님의 삶과 말씀이 예술가의 삶과 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것은 전통의 현대

성이다. 그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 고민한다. “도예의 뿌리는 과거에서 시작했지만 거기에서만 머물 수는 없죠. 그렇다고 열매만 맺고 뿌리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대 도예가 무엇인지 늘 고민합니다. 저는 우리의 전통미를 현대적인 조각성 건축성 회화성을 가미시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합니다”

윤광조 작가는 1973 홍익대학교 미대 공예학부를 졸업하고 제7회 동아공예대전 대상 수상, 제4회 공간도예대전 우수상 수상, 2004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8 경암학살상-예술부분을 수상했다. 배송갤러리(런던), 필라델피아미술관, 버밍엄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시애틀뮤지엄, ‘분청사기 특별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뉴욕, 미국) 등에서 전시를 열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

김재영의 <초기불교...>대상 수상

조계종 문화부와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스님)가 공동주최한 제 9회 불교출판문화상이 1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대상을 받은 민족사의 수상 장면.

올해 대상에는 <초기 불교의 사회적 실천>(김재영 지음/ 민족사)이 우수상에 <한계를 넘어서>(석담스님 지음/ 동국대 출판부) <영원에서 영원으로>(불필스님 지음/ 김영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조계종 문화부장 진명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력과 정진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가려는 불교 출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이 상이 우수 작가를 육성하고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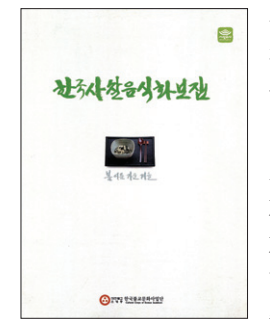
교 출판 기획·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시상식 2부에서는 ‘북&송 콘서트’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가수 김현성과 움직이는꽃이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고 문화부장 진명 스님이 수상작 <영원에서 영원으로>를 낭독했다. 정혜숙 기자

사계절 사찰음식을 만나다

문화사업단, <한국사찰음식화보집> 발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사찰 음식을 담은 화보집이 발간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최근 사계절을 대표하는 사찰 음식을 담아낸 <한국사찰음식화보집>을 발간했다.



이를 위해 적문, 정관, 홍승, 선재, 대안, 우관 스님 등 사찰음식 교재편찬위원회는 수 차례 논의를 거쳐 현대인에 맞는 사찰음식 레시피를 정리해 냈다. 신종원 기자 motp79@hyunbul.com

화보집에는 봄 음식인 감자 부각부터 겨울의 흑임자두부조림까지 80종의 사찰음식이 사진으로 수록돼 있으며, 상세한 레시피도 함께 정리했다.

특히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조리법을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현대적인 계량법으로 정리한 것은 이번 화보집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실제 화보집의 조리법은 김치와 장류

등 대량 조리가 필요한 것은 제외하면, 일반 가정인 4인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재료의 표기도 주재료, 부재료, 양념 순으로 알기 쉽게 표기했다.

Advertisement for 'Minsokjukyeom' (민속죽염) featuring a photo of a person in a field and text describing its health benefits and product details.

Advertisement for 'Cheonshin' (천선) featuring a photo of a person and text about its benefits for health and vitality.

Advertisement for 'Shingan' (신간) featuring a photo of a person and text about its benefits for health and vitality.